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7.(화) 11:00 < 11.8.(수) 조간 > 배포 2023. 11. 7.(화)

발전업계, 겨울철 차질 없는 에너지공급 다짐

- 주요 민간발전·집단에너지 사업자 소통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11. 7.(화) 주요 민간발전 및 열병합에너지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력 분야 현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강경성 2차관이 정부와 에너지업계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어가기(릴레이) 간담회의 하나로 개최된 것으로, 정유업계(8. 17.), 에너지산업 협단체(10. 5.), 가스업계(10. 12.), 에너지신산업계(10. 24.), 에너지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11. 1.) 등에 이어 개최되었다.

민간발전사들은 '22년 기준 우리 석탄발전량의 16.5%,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의 6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전체 전력 수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발전업계 중에서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등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6개사가 참가하였다.

* 참석자: (액화천연가스(LNG)) SK E&S 추형욱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전혁 에너지부문장
(석탄) 강릉에코파워 장용창 사장, 고성그린파워 김우용 사장
(열병합) GS E&R 김석환 사장,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참석기업들은 올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이 중요한 가운데 차질 없는 연료 수급과 설비관리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필요한 물량도 차질 없이 도입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 전력 수급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발전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간발전업계가 미래 기술발전과 수급 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기 위해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간담회에서 "민간발전업계가 전기와 열 등 민생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에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올겨울도 철저한 대비로 공급에 지장이 없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전력산업이 안정적·경제적인 국내 에너지공급에서 더 나아가 국제(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38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